

“내 것, 나의 것”이라는 예고를 버리고 아버지 브라마의 발자국에 걸음을 내디뎌라.

오늘 밥다다는 그의 고귀한 브라민 영혼들을 모든 곳에서 보고 있다. 브라민이란 브라마의 입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밥다다는 브라민 자녀 하나하나의 행운을 보며 매우 행복하다. 브라민 자녀가 하나씩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브라마는 그 자녀의 이마에 의식의 틔락을 찍어준다. 신이 친히 너희를 틔락을 가진 자로 만든다. 더불어 그는 각 브라민 영혼이 순수성이라는 위대한 만트라를 통해서 빛의 왕관을 채택할 수 있게 해준다. 덧붙여 브라민 영혼인 너희들 각자를 세계의 시혜자로 만들고, 너희가 책임의 왕관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신이 친히 너희를 그의 가슴의 옥좌에 앉히고 2중의 왕관을 쓰게 해준다.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틔락, 왕관, 옥좌를 가진 자가 된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어떤 영혼도 그렇게 큰 행운을 가질 수 없었다. 브라민인 너희들은 이렇게 고귀한 행운을 인식하느냐? 태어나자마자 너희가 그렇게 엄청난 행운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희 브라민들을 크리스나의 형태로 상징해 왔다. 하지만 그는 세계의 왕자이므로 틔락, 왕관, 옥좌를 줌으로써 왕국의 징표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아이일 때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는 반면, 브라민인 너희들은 틔락, 왕관, 옥좌, 이 세 가지를 다 받는다. 오직 브라민인 너희들만이 지고의 아버지에게서 이 세 가지 성취를 받는 행운을 가진다. 이처럼 밥다다는 각자의 이마에서 행운의 별이 얼마나 대단하게 빛나고 있는지 보고 있었다. 너희들 위에서 행운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역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언제나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별이 가끔은 아주 멋지게 빛나지만 다른 때는 그 광채가 줄어들느냐? 이 행운의 별은 독특한 별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만날 때마다 밥다다는 각자의 이마에서 빛나고 있는 별을 보는 것이 기쁘다. 반짝이는 별의 광채가 어째서 희미해지느냐? 너희들 모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아주 잘 안다.

너희 자녀들의 차트를 보면 밥다다는 웃음이 난다. 너희들 중 누구든, 뭘 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너희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묻는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가, “저는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한다. 너희들 중 누구도 달 왕조의 라마 왕이나 시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1등인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 그 목표에 따라서 언제나 태양왕조에 들어가려는, 목표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너희 자녀들은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려는 목표를 가졌다, 즉 너희의 목표는 한결같이 승리하는 것이다. 한결같이 승리한다는 것은 1등인 태양왕조 영혼을 나타내는 징표다. 태양은 결코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그 도수는 결코 달 왕조의 도수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항상 안정되어 있고 변함 없으며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은 태양왕조 영혼을 나타내는 표시다. 달 왕조에 속하는 자들은 전사라고 불린다. 전사의 삶에는 더러는 승리가, 때로는 패배가 있다. 그들은 가끔은 성공의 화신이고, 다른 때는 애쓰는 화신이다. 투쟁한다는 것은 애쓰는다는 뜻이다. 달 왕조의 일부인 자들의 도수는 한결같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격요건을 너희의 목표와 일치시켜라. 너희들은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는 목표를 지녀왔다. 자녀들 각자가 언제나 “저는 아버지와 대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쉬운 승리의 화신이다. 만일 너희가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1등이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등수대로인 자들 중 하나가 되려느냐? 하나는 1등을 차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수대로인 자들 중에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나는 1등인가, 등수대로인 자들의 명단에 들어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아라. 1등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브라마를 따른다는 뜻이다.

밥다다가 너희에게 쉬운 방법을 보여주는데, 아버지를 따름으로써 노력이 덜 든다. 발자국, 즉 브라마의 발자국은 매 과제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표시해준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발자국에 발을 내딛기는 아주 쉽다. 너희가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저 그의 발자국에 발을 딛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수행하는 과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을 만드는 것이든, 말을 몇 마디 하거나 남들을 대하는 일이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너희는 행하려는 행위가 아버지 브라마의 행위들과 같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아버지 브라마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 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같은 선 위에 놓여 있는가?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브라마가 한 말과 같은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일 같지 않다면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행동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인 너희들의 발걸음과 아버지 브라마의 발걸음 사

이에 차이가 전혀 없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목표를 달성해서 아버지와 대등해진다는 목적지에 도달하겠느냐? 너희가 매 발걸음마다 끊임없이 브라마를 따르면, 첫째로는 너희 자신을 쉬운 노력가로 경험할 것이고, 둘째로는 완전해진다는 목적지를 가깝게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처럼 된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는 서틀 리전에서 너희들이 미묘한 천사가 되도록 너희들 모두를 불러낸다. 아버지 브라마가 부르는 노래, 그가 “애야, 오너라! 사랑스러운 애들아, 빨리 와라!” 라고 부르는 노래의 감미로운 소리를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곡조와 노랫말을 들을 수 없느냐? 브라마 바바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포착해라. 브라마 바바가 말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1999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너희들은 궁금해한다. 너희들은 이것에 관해서, 어찌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한다.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라는 노래를 입에 달고 있다. 그러면서도 빨리 전진해서 천사의 형태에, 또는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려는 고결한 생각을 하는 자는 너희들 중 극소수뿐이다. 너희들은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라는 노래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노래를 많이 부른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걸 듣고 보는 것이 너희의 목표냐, 아니면 아버지 브라마처럼 천사가 되는 것이 너희들의 목표냐? 이를 위해 너희가 준비를 해두었느냐? 원소들이 색깔과 형태를 보여주더라도 자녀인 너희들은 천사의 형태를 채택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아비약트의 형태가 되어 원소의 모든 장면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원소들의 격변에 영향 받지 않는 천사들이 되었느냐? 너희들의 단계를 준비하면서 바쁘냐,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분주하냐? 너희 앞에 어떤 역경이 나타나더라도 원소들의 주인인 너희는 주인의 자리에 좌정해 있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동요되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묻겠느냐? “이 일이 일어났고 저 일이 있어났고...” 하는 장면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너희들 자신을 바쁘게 하려느냐? 혹은 완전한 단계에 안정해 머물면서 역경을 흘러가는 구름으로 경험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가 너희 자녀들에게 묻겠는데, 너희가 나처럼 영구적인 천사가 되었느냐? 자녀인 너희들 모두 육신의 모습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비약트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이미 아비약트가 되었으니 그가 우리들도 역시 아비약트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가 이르는데, 우선 첫째로 아버지가 너희들의 머리 위에 씌워준 왕관의 책임을 너희가 다 이행했는지, 즉, 세계 유익에 대한 책임을 완수했는지 스스로 물어봐라. 세계 시혜자인 너희가 세계의 유익이라는 과제를 이미 완수했느냐? 세계 유익이라는 과제를 너희 자녀들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브라마는 아비약트가 되었다. 그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서 봉사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너희는 어디서나 이것의 실질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아비약트 브라마에 의해서 이 나라와 외국 양쪽 모두에서 봉사의 속도가 가속되어 왔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는 봉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왕국에 대한 권리를 아버지 브라마 혼자서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녀인 너희들도 모두 그와 더불어 왕국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너희 자녀들이 물질세계에서 각자 육신의 형태로 도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육신의 형태인 너희 자녀들도 모두 아비약트 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완전한 너희들 자신이 되고 완성을 불러와서,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의 속도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 브라마가 너희에게 묻는데, 우리가 1999년에 완성되어야겠느냐? 원소들은 전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손뼉을 쳐서 신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더블 라이트 천사들이 되었느냐? 최소한 너희들 중 108명은 변함없이 승리하느냐? 모든 이와 연결되어 관계를 맺을 때 그 어떤 유형의 낭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말, 행위도 하지 않는 데서 너희가 합격했느냐? 낭비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의 무게는 너희가 영구적으로 더블 라이트 천사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가 묻겠는데, 너희들은 이제 이 무게에서 벗어나 천사들이 되었느냐? “끊임없이” 라는 말에 밀줄을 그어라. 최소한 108 영혼이 끊임없이 천사의 삶을 경험하면 그들이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데, 내가 지금 손뼉을 칠까? 아니면 내가 2000년에 손뼉을 쳐야 하겠느냐? 혹은 2001년에? 내가 언제 손뼉을 쳐야 될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바바가 손

뺨을 치고 난 뒤에 너희가 이것이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바가 손뺨을 치면 너희가 이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바바가 손뺨을 칠까? 말해 보거라! 너희들은 준비되었느냐? 시험지를 너희에게 주어야 할까? 바바는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바바가 너희에게 시험을 보일까? 선생들아, 말해봐라! 바바가 너희에게 시험지를 줘야겠느냐?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것이다. 마두반에 있는 자들은 마두반을 떠나야 할 것이다. 기안 사로바에 있는 자들은 기안 사로바를 떠나야 할 것이다. 센터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센터를 떠나야 할 것이고, 외국에 있는 자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걸 떠나야 할 텐데, 그러니 너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가 항상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면 손뺨을 쳐봐라! 너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바바가 너희에게 시험을 보일까? 바바가 이것을 내일 발표할까? 너희가 집에 돌아간 후에만 모든 걸 버리지는 않겠지? 너희가 일단 모든 것을 먼저 정리하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의 직장이나 침대, 방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물건을 넣어둘 장롱마저 없을 것이다. 하던 일이 약간 있으니 이틀간 먼저 그 일을 끝낸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니다. 명령은 명령이다! 준비되었느냐? 말해봐라! “네”라고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바가 내일, 너희가 어디로 가야하고 어디에는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명령을 내릴 것이다. 바바가 이 명령을 내릴까? 준비되었느냐? 너희들은 크나큰 용기를 갖고 “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구나. 너희들은 하루를 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어쩌면 나 없이 이 일이 일어나겠네.” “나를 빼놓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해.” 이런 낭비적인 생각조차 하지 마라. 브라마 바바가 옮겨졌을 때, 자기 없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생각했느냐? 모든 일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를 그가 생각했느냐? 한 가지 지시를 내려줘야겠다고 그가 생각했느냐? 그가 지시를 했느냐? 그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성된 단계를 통해서 지시를 내려줬다. 너희들은 이 정도로 준비되었느냐? 명령을 받자마자 너희가 놓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준비 말이다. 이 격변이 지금 일어나야겠느냐? 너희가 뭘 해야 할지 바바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다. 너희에게 뭘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령을 하나 줄 따름일 것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너희가 와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더블 라이트 천사가 되는 것이라 한다. 명령을 받자마자 너희는 날아간다. 너희가 죽음에게서 명령받는다면 뭔가에 관해 생각하겠느냐? 너희의 센터, 너희의 장롱, 너희의 학생, 너희의 지역에 대해 생각하겠느냐? 오늘날에는 “나의 지역”에 대한 혼란이 심하다. 세계의 시혜자가 한정된 지역을 가지느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모든 것 역시 몸에 대한 예고다. 몸을 의식하는 것은 그래도 몸에 대해 예고를 가지는 것만큼은 심각하지 않고 매우 미묘하다. “나의 것”에 대해 의식하는 것은 몸에 대한 예고라고 불린다. 너희가 “나의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는 틀림없이 예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너희의 특기일 수도 있어서 “이게 나의 특기야” 또는 “나의 미덕들” “나의 봉사”일 수도 있다. “나의 것”에 대한 의식이 생길 때면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닌, “프라부 프라사드” (너희가 이미 신에게 바친 것)임을 기억해라. “프라사드”를 너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육체의식이다. 이 예고를 버리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천사는 몸에 대한 예고를 버린 자, 몸에 대한 의식도 없고 어떤 유형의 것이든 ‘나의 것’에 대한 의식도 없는 자,” 라고 일컬어진다. 천사가 된다는 것은 한정된 관계들을 이미 다 끝냈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하려느냐? 주의를 집중해서 아버지 브라마의 소리를 들어라, 그는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완성의 복을 치기는 아주 쉽다. 그가 원할 때면 언제든 칠 수 있지만, 그러나 황금시대가 시작될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비록 등수대로이긴 하겠지만 최소한 90만 명은 있어야 된다. 결국 넘버원은 극소수뿐일 수밖에 없다! 넘버원이 최소한 108명, 2등이 만 6천명, 3등이 90만 명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수만큼은 준비되어야 한다. 왕국이 준비되어야 한다.

밥다다가 본 결과에서, 즉 지금 현재 마야는 너희들 중 대다수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낭비적인 생각의 형태로 존재한다. 세계 시혜자인 너희들은 끊임없이 무한한 태도, 무한한 드리시티, 무한한 단계를 가져야 한다.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너희의 태도에 조금도 부정적이거나 낭비적인 생각이 없게 해라. 뭔가 부정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일이다. 어쨌든 제 자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은 남들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변화도록 도울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 각자 미묘하게 스스로 점검해서, 남들을 대하는 너희의 눈길이나 태도가 언제나 무한한 방식으로 자애로운지 살펴봐야 한다. 오직 자비로운 느낌만 지니고 한정된 느낌, 한정된 생각이나 말은 미묘하게 마음속에조차 없게

해라. 너희의 마음속에 미묘하게 합쳐져 있는 것은 뭐든 어떤 특정한 때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서 물리적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너희가 괜찮을지 몰라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언제나 이래. 이 상황은 언제나 이래. 이 사람은 이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더라도, 너희의 단계는 무한한 느낌으로 충만하냐? 제 자신의 잘못을 점검해라. 이해하느냐?

상황을 보지말고 너희 자신을 보아라! 그게 전부다! 1999년에 너희들은 모두 아버지 브라마의 발자국과 너희의 발걸음이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한다. 너희들 모두 아버지 브라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옳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 1999년에 준비되겠느냐? 너희에게는 아직 1년이 있다. “이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났다” 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사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아버지처럼 천사도 역시 되어야 한다. 이해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1년에 준비가 되겠느냐, 반년이면 준비되겠느냐? 아버지 브라마도 역시 너희가 완전해지도록 부르고 있고, 자연도 역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6개월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6개월에 안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직 1년이 남아 있다. 동요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어라! 하지만 너희의 목표는 결코 잊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아버지와 대등해져야 한다. 브라민들 중의 일부가 너희를 흔들려 하거나 너희의 길에 장애가 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아버지와 같아져야 한다. 이 조언이 너희 맘에 드느냐? (밥다다는 집회에 모인 이들 모두가 손을 들게 했고, 모든 이의 사진을 찍게 했다.) 바바가 모든 이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겠다. 여기 이 영화에는 누군가가 빠졌을 수 있지만, 서틀 리전의 영화에는 아무도 빠질 수 없다. 앓차.

아버지가 묻는데, 너희들 각자 1초에 몸이 없어질 수 있느냐? 자 이제는 1초에 몸 없이 안정해 있어라. (바바가 훈련을 지휘하였다.) 앓차, 이제 너희 몸으로 돌아와도 된다. 자 이제 다시 몸 없이 되어라. 하루 내내 시간이 단 1초라도 나면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반복해라. 앓차.

가장 고귀한 너희 브라민 영혼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의 발자국에 끊임없이 그들의 발을 내디디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따르는 순종적인 자녀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에게 가깝고 끊임없이 아버지 브라마처럼 천사의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자들에게, 원소의 주인이 되는 자들과 초연한 관찰자로서 자연의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흔들림 없고 부동한 영혼들에게, 태도와 눈길이 변함없이 무한한 자들에게, 행운아인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이것을 듣고 있는, 이 나라와 외국의 모든 이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낸다.

축 복: 확장을 가져오고, 부양해주는 고귀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축하 받을 가치가 있게 되어라.

합류시대는 축하를 통해서 확장을 경험하는 시대다. 자녀인 너희들은 아버지와 가족의 인사와 축하에 의해 부양 받고 있다. 너희들은 인사를 받으며 춤추고 노래 부르고 부양 받고 날아다닌다. 이 부양은 경이롭다. 관대한 마음과 자비의 느낌을 가진 너희 자녀들은 “아주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라 말하면서 모든 이를 축하하고 시혜자가 된다. 이것은 부양을 주는 고귀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를 계속 부양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이에게서 축하 받을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슬로건: 너희가 너그러운 성질을 가지는 것이 해결책의 화신이 되는 쉬운 방법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